

皇龍寺中金堂址佛像臺石에 대한 고찰

A Study on Stone Pedestals for the Buddha Triad in Golden Hall, at the Hwangryongsa Temple-site, Gyeongju

저자 (Authors)	韓政鎬 Han Jungho
출처 (Source)	미술사연구 , (24), 2010.12, 39-59 (21 pages) Misulsa Yeongu : Journal of Art History , (24), 2010.12, 39-59 (21 pages)
발행처 (Publisher)	미술사연구회 Association Of Art History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592226
APA Style	韓政鎬 (2010). 皇龍寺中金堂址佛像臺石에 대한 고찰. 미술사연구, (24), 39-59.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7/06 13:18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皇龍寺 中金堂址 佛像臺石에 대한 고찰

韓政鎬*

I. 머리말

II. 황룡사 장육존상 관련 문헌기록

III. 장육삼존상의 대석

IV. 중금당지의 諸 불상대석

V. 맺음말

I. 머리말

고려 고종 25년(1238) 몽고전란으로 인한 황룡사의 소실은 한국 불교미술사에 가장 큰 손실을 끼쳤던 사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시의 화재로 인해 신라 왕실의 후원 속에 제작된 수많은 불교미술품들이 사라졌다. 역사서에 기록된 조형물만 하더라도 신라 三寶 가운데 두 보배로 추앙받던 장육삼존상과 높이 225尺(약 79m)의 구층탑을 비롯하여 성덕 대왕신종을 능가하는 大鍾, 그리고 솔거가 그렸다는 老松圖 등 조각과 건축, 공예, 회화 분야에서 모두 당대 최고의 불교미술품으로 평가되던 작품들이 소실되었다. 시기적으로도 황룡사가 창건되던 진흥왕 14년(553)부터 통일신라시대를 거쳐 고려 전기에 이르기까지 약 700여 년의 변화과정을 보여주는 수많은 유물들을 일순간에 잃게 되었다. 그 결과 신라 불교미술의 寶庫였던 황룡사에 대한 연구는 주로 고고학과 문헌사학의 영역에서 활발하게 논의될 뿐 미술사적 연구의 허용범위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현실적으로 황룡사에 대한 불교미술사적 접근은 대부분 작품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전개할 수밖에 없는 연구의 한계 속에서 황룡사 장육존상을 주제로 하여 선행된 미술사적 연구 성과에 대해 “남아있지 않은 작품에 대한 연구를 과연 미술사적 연구로 볼 수 있는가”라는 본질적인 문제가 거론되기도 했다. 이와 같은 문제 제기는 연구 자체에 대한 부정이라기보다는 일부 비실증적인 연구 방식을 경계하기 위한 지적으로 이해된다.

황룡사 장육존상은 비록 현존하지 않지만 비교적 풍부한 문헌자료를 남기고 있다. 동일한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역사학의 시각과 미술사의 시각은

*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박물관 전임연구원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미술사적 연구의 가치가 부정될 이유는 없다. 실례로 아육왕과 관련된 황룡사 장육존상의 해석에 있어 역사학에서는 신라 불국토설과 연관시켜 정치·사회적 시각에서 해석하지만, 미술사학의 영역에서는 중국의 유사한 연기설화가 전하는 아육왕상 사례들의 양식적 공통점을 도출하여 황룡사 장육존상의 양식을 추정하였다.¹⁾ 이러한 양식 복원에는 물론 불확실성이 존재하겠지만, 현존하는 신라의 불상 가운데 그 영향 관계에 있는 사례들을 제시하고 객관성을 부여했다면 논리적 검증은 충분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황룡사 장육존상에 대한 양식적 큰 그림은 이미 선행 연구를 통해 윤곽이 그려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룡사 장육존상의 양식 추정에 있어 연구자들 사이에 공통된 의견 보다는 서로 다른 의견이 개진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그 원인은 아마도 작품의 부재라는 근본적인 문제와 더불어 한정된 사료의 해석에서 비롯된 견해의 차이일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황룡사 장육존상에 보다 구체적으로 다가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연구와는 다른 새로운 접근 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 대안으로 기존의 논의에서 제외되었던 황룡사 중금당지의 장육삼존상의 臺石을 주목하고자 한다. 현재 황룡사 중금당지에는 장육삼존상의 대석을 비롯하여 십대제자상과 사천왕상 및 제석·범천상의 대석으로 추정되는 석조물들이 원위치에 남아있다. 황룡사 장육존상 대석의 구조와 표면에 남아있는 흔적은 장육존상의 원형 복원에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1차 사료이다. 본 논문에서는 장육존상의 대석을 중심으로 기존의 한정된 시각으로 인한 오류를 바로잡고, 이후 추가로 밝혀진 내용을 보완하여 황룡사 금당에 봉안되었던 장육존상과 여러 상에 대한 해석을 시도해보고자 한다.²⁾

II. 황룡사 장육존상 관련 문헌기록

신라 최대의 왕실 사원이었다는 사실에 걸맞게 황룡사와 관련된 문헌자료는 고대 사찰을 통틀어 풍부한 편이다. 신라 三寶의 하나로 추앙받던 황룡사 장육존상관련 기록은 설화적 요소가 농후하지만 『삼국유사』 권3 皇龍寺丈六條에 자세히 실려 있어 여러 논의의 근

1) 김리나, 「皇龍寺의 丈六尊像과 新羅의 阿育王像系 佛像」, 『震檀學報』 46·47(진단학회, 1979), pp. 195~215.

2) 필자는 학부 시절부터 황룡사지를 오가며 불상대석의 구조와 흔적을 관찰하고 그 위에 서있던 장육존상과 연계하여 해석을 시도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의 논고는 시론적 성격의 논문으로 황룡사 전반에 관한 주관적 단상들의 나열에 불과했다. 한정호, 「皇龍寺의 再照明을 위한 試論」, 『겨레문화』 11(한국겨레문화연구원, 1997), pp. 141~172.

거가 되었다. 황룡사 장육존상과 관련된 기록 가운데 그동안 논의되었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a) 바다 남쪽에 큰 배 한 척이 나타나서 河曲縣 絲浦에 닿았다(지금의 蔚州 谷浦이다). 이 배를 검사해 보니 公文이 있는데 이르기를, 西竺 阿育王이 黃鐵 5만 7천근과 黃金 3만 7천근이라고도 한다) 장차 석가삼존상을 주조하려고 하였으나 이루지 못해서 배에 실어 바다에 띄우니 “부디 인연 있는 國土에 이르러 丈六尊容을 이루기 바란다”고 했다. 더불어 불상과 두 보살상의 모형이 실려 있었다.
- b) 그 금과 쇠는 서울로 보내서 太建 6년 甲午(574) 3월(寺中記에는 癸巳(573) 10월 17일이라고 했다)에 丈六尊像을 주조했는데 공사는 금시에 이루어졌다. 그 무게는 3만 5천7근으로 黃金 1만 198푼이 들었다. 두 보살상은 쇠 1만 2천 근과 黃金 1만 136푼이 들었다.
- c) 황룡사에 모셨더니 이듬해에 불상에서 흘러내린 눈물이 발꿈치까지 흘러내려 땅이 한 자나 젖었다. 이것은 대왕이 승하할 조짐이었다. 혹은 불상이 眞平王 때에 이루어졌다고 하나 이것은 그릇된 말이다.
- d) 마지막으로 신라국에 이르러 진흥왕이 文仍林에서 주조하여 불상을 이루니 상호를 모두 갖추게 되었다.
- e) 佛像이 완성된 이후 東竺寺의 삼존불 또한 황룡사로 옮겨 안치했다. 절의 기록에는 “진평왕 6년 甲辰(584)에 금당이 조성되고, 善德王 때에 이 절의 첫 번째 주지는 眞骨 歡喜師였고, 제2대 주지는 慈藏國統, 그 다음은 國統惠訓, 그 다음은 麻律師였다”고 한다. 지금에 이르러 兵火가 있는 이후 大像과 두 보살상은 모두 녹아 없어졌고, 작은 석가상만 남아 있다.

a)의 기록은 황룡사 장육존상 조성의 인연 설화적 성격이 강하지만 황룡사 장육존상의 양식 규명에 가장 유력한 단서를 제공한다. 이와 관련된 연구로 황룡사 장육존상의 인연 설화는 신라 고유의 것이 아니라 당시 국제관계 속에서 전래된 외래적 요소일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가 주목된다. 4세기 중국 남조의 晉代 이후 아육왕이 만들었다는 불상이 중국 곳곳에서 神異를 보였다는 전설은 널리 확산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설화와 연계된 阿育王像式 불상 형식이 존재했음이 확인된다.³⁾ 이를 대표하는 불상은 四川城 成都의 萬佛寺址에서 출토된 석조여래입상으로 아육왕상을 조성했다는 명문이 있다. 또한 成都의

3) 김리나, 「阿育王造像傳説과 敦煌壁畫」, 『蕉雨黃壽永博士古稀紀念美術史學論叢』(通文館, 1988. 6), pp. 853~866.

西安路에서는 梁太淸 5年(551)에 해당되는 명문이 있는 상에 아육왕상이라고 기록하고 있다.⁴⁾ 이 불상들은 양식적으로 인도적 특징이 농후하여 6세기 후반 중국 조각에 반영된 인도 굽타양식의 영향을 보여준다. a)의 기록에 불상의 모본이 인도에서 전래되었다는 내용은 황룡사 장육존상 역시 異國의인 인도 조상의 특징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해 주며, 이후 경주 남산 배동 삼체석불입상의 본존이나 구황동 삼층석탑에서 발견된 금제여래입상 등이 황룡사 장육존상을 계승한 유형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황룡사 장육존상의 양식을 당시 국제관계라는 거시적 안목에서 접근한 가장 실증적인 해석으로 평가되며, 황룡사 장육존상 복원의 밑그림이 된다고 하겠다.

위의 기록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최근의 연구로는 중국의 위진남북조시대의 瑞像을 優填王像과 阿育王像으로 구분하여 검토한 결과 지역적으로 북조의 경우 우전왕상을 서상으로 인식한 반면, 아육왕상과 관련된 기록은 남조에서 일관되게 나타난다는 지역적 편차가 확인되었다.⁵⁾ 이러한 연구 결과는 최근 신라 초기 불교에 남조불교적 요소가 간취된다는 견해와 더불어 시사하는 바가 있다.⁶⁾

b)의 기록은 황룡사 장육존상이 조성된 시기와 삼존불의 주조에 소요된 재료의 무게를 밝히고 있다. 먼저 불상의 완성된 시기와 관련하여 본문의 大建 6년(574) 3월과 寺中記를 인용하여 부기한 癸巳年(573) 10월 17일은 서로 차이가 있다. 두 기록 사이에는 약 5개월 여의 시차가 있는데 이 시차에 대해 사증기에 기록된 573년 10월 17일은 불상조성에 착수한 시점이고, 장육존상이 완성된 시기가 이듬해 3월이라는 추정은 신뢰할 만한 해석이라고 생각된다.⁷⁾

이어서 장육삼존상의 조성에 사용된 재료의 무게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록하였는데 a)의 기록에 보이는 아육왕이 보냈다는 황철의 무게와 더불어 6세기의 신라 도량형이 밝혀진다면 장육존상 복원에 매우 중요한 자료라 하겠다. a)의 기록에 언급된 인도 아육왕이 보냈다는 황철의 무게는 5만 7천 근과 40만 7천 근 또는 3만 7천 근으로 각각 다르게 기록하고 있다. 세 가지 무게 가운데 이어지는 b)기록의 장육삼존상 조성에 소요된 재료의 무게와 비교할 때 본문의 5만 7천 근이 가장 근사치에 해당한다. 그런데 5만 7천 근이라는 장육삼존상의 재료는 경덕왕대에 조성된 분황사 약사상 조성에 소요된 재료의 무게가 30만 6천 7백

4) 김리나, 「신라불교조각의 국제적 성격」, 『2007 신라학 국제학술대회 논문집』 제1집(경주시·신라문화유산조사단, 2008), pp. 98~100.

5) 소현숙, 「中國 魏晉南北朝時代 '瑞像' 숭배와 그 地域性」, 『중국사연구』 55(중국사학회, 2008), pp. 15~49.

6) 신종원, 「斷石山神仙寺 造像銘記에 보이는 彌勒信仰集團에 대하여」, 『歷史學報』 143(역사학회, 1994), pp. 1~26; 양은경, 「신라 단석산 마애불」, 『역사와 경계』 62(부산경남학회, 2007).

7) 이기백, 「皇龍寺와 그 創建」, 『新羅思想史研究』(일조각, 1986), pp. 51~74.

근이라는 기록과 비교하여 큰 차이를 보인다.⁸⁾ 이러한 차이는 아마도 적용된 도량형의 차이로 볼 수 있으며, 어쩌면 一然이 인용하여 부기한 別傳의 4만 7천 근이라는 무게는 5만 7천 근을 후대의 도량형으로 환산한 무게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한다.

b) 기록의 장육삼존상에 소요된 재료의 무게는 장육존상이 3만 5천 7근, 두 보살상은 1만 2천 근이라고 매우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 기록 가운데 보살상에 소요된 재료의 무게를 해석함에 있어 1만 2천 근을 보살상 2구를 주조하는데 든 무게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⁹⁾ 그러나 이러한 해석대로라면 보살상 1구에 소요된 재료의 무게는 6천근에 불과하여 본존 장육상의 규모와 과도한 차이를 보일 뿐만 아니라 도금에 사용된 황금의 무게를 비교하더라도 본존 장육상에 사용된 황금의 무게보다 규모가 작은 보살상에 더 많은 황금이 소요된다는 모순이 있다. 따라서 아육왕이 보냈다는 전체 무게와는 차이가 있지만 보살상의 주조에 사용된 1만 2천 근이라는 재료는 각각의 보살상에 1만 2천 근이 소요된 것으로 해석하여 도합 2만 4천 근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c)의 사료는 장육존상의 神異와 관련된 내용이지만 이 기록을 통해 두 가지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먼저 이 기사는 574년에 장육삼존상이 조성된 이후 곧바로 황룡사에 봉안되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사실은 장육삼존상이 조성된 이후 약 10년이 경과된 진평왕 6년(584)에 이르러 황룡사 금당이 완성되었다는 기록과 연계하여 금당 주춧돌이 놓이기 이전에 장육삼존상이 봉안되었다는 발굴조사 결과와도 상통한다. 그리고 황룡사 중금당지에 남아 있는 장육삼존상의 대석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불상이 흘린 눈물이 발꿈치까지 흘러 내려 땅을 적셨다는 기록만으로도 장육삼존상의 형식이 좌상이 아니라 입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d)의 사료는 삼국시대 불상을 주조했던 공방과 관련된 유일한 기록으로 황룡사 장육삼존상의 주조처가 文仍林에 위치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일설에 문잉림은 불교가 전래되기 이전 고대 신앙의 신성 지역인 蘇塗로 보고, 원시 신앙에 쓰였던 청동제 儀器의 제작기술을 계승한 기술자 집단에 의해 황룡사 장육삼존상이 조성되었다는 견해가 있다.¹⁰⁾

현재 문잉림의 위치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지만 거구의 불상을 이운하는 절차를 감안할 때 황룡사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일 가능성이 높다. 문잉림에 대한 기록은 『三國遺事』 가운데 통일신라 초기에 활약했던 밀교 승려 혜통과 관련된 일화에 언급되었다.¹¹⁾ 이 기록

8) 『三國遺事』 권3, 皇龍寺鍾 芬皇寺藥師 奉德寺鍾條.

9) 문명대, 「신라 三寶 皇龍寺 金堂 釋迦丈六三尊像의 복원과 황룡사지 출토 金銅佛立像의 연구」, 『韓國佛敎의 座標-綠園스님 古稀紀念學術論叢』(1997), pp. 378~379.

10) 趙法種, 「新羅寺院奴婢의 起源問題에 關한 一考察」, 『史叢』 32(고대사학회, 1987), pp. 28~29.

11) 『三國遺事』 권5, 惠通降龍條.



圖 1. 금동여래입상, 6세기, 傳 황룡사지 출토, 동국대학교 박물관 소장

에는 낭산 북동쪽에 위치한 신문왕릉과 관련된 내용이 등장하며, 황룡사와의 이격 거리를 고려할 때 문인림의 위치는 경주 낭산의 서북쪽 일대일 가능성이 높다.

끝으로 e)의 기록은 황룡사 금당이 완공된 시기와 장육존상의 모본이 되었던 삼존상의 행방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특히 동축사에 봉안되었던 삼존불을 황룡사로 옮겨서 안치했다는 내용은 황룡사 장육존상의 연기설화가 새로운 불상 양식의 전래와 관련되었을 개연성을 보여준다. 한편 몽고전란 이후에도 작은 석가상이 남아있었다는 이 기록에 근거하여, 1959년에 황룡사 서금당지 부근에서 발견되었다고 전하는 동국대학교 박물관 소장 금동불입상을 동축사에서 옮겨온 모본으로 비정하고 황룡사 장육존상의 복원을 시도하려는 논의가 있었다(圖 1).¹²⁾ 그러나 이 불상은 北魏 및 東魏 양식이

반영된 예로 황룡사 장육존상의 조성시기와 시기적으로는 유사하지만 양식적으로 인도와의 관계는 희박하다.¹³⁾ 그리고 위의 기록에서 장육삼존상이 녹아 없어진 이후 황룡사에 남아있었다는 작은 석가상이 동축사에서 옮겨온 삼존불을 지칭한다고 볼 만한 절대적인 근거는 없고, 학술조사가 아닌 지표수수에 의해 입수된 불상의 출처를 과연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Ⅲ. 장육삼존상의 대석

1. 장육삼존상 대석의 구조와 연화좌

황룡사 중금당지의 內陣 중앙 후면에는 장육삼존상이 서있던 3기의 불상대석이 원위치에 남아 있다(圖 2). 발굴조사 당시 이들 불상대석의 주변에서는 동서 길이 약 1090cm(36尺), 남북 폭 약 545cm(18尺)의 積心石列이 확인되었는데, 이 석열은 불단을 마련하기 위한 하부 시설로 추정되고 있다.¹⁴⁾ 이로 미루어 볼 때 황룡사 장육존상을 봉안하기 위한 불단의 폭과 너비의 비율은 정확하게 1:2의 비례로 계획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그 높이는 장

12) 문명대, 앞의 논문.

13) 김리나, 「皇龍寺의 丈六三尊과 新羅의 阿育王像系 佛像」, p. 200.

14)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皇龍寺 遺蹟發掘調査報告書』I(1984), pp. 51~52.



圖 2. 황룡사 중금당지 장육삼존상 대석



圖 3. 장육삼존상 대석의 꺾쇠홈

육삼존상 대석 상면과 수평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장육삼존상의 대석은 가람의 동서 중심축에 장육삼존상 대석을 배치하고 그 양편에 협시보살상 대석이 각각 같은 높이로 놓여 있으며, 본존 대석의 중심에서 보살상 대석 중심까지는 각각 273cm의 간격을 보인다. 삼존상 대석은 최대 직경 약 3m 정도의 타원형에 가까운 형태이며, 대석의 크기만 놓고 본다면 3기 모두 대동소이하다. 대석은 모두 상면만 가공되었을 뿐 지표에 노출된 그 밖의 표면은 인공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가공되지 않은 대석 측면의 질감은 자연풍화된 바위와 동일하여 불상의 대석으로 가공되기 이전에는 오랜 세월동안 외부에 노출되었던 바위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보편적으로 고대 석조물의 표면에는 암벽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과정에서 생기는 채석의 흔적이나 다듬질한 흔적이 확인된다. 이와 비교하여 풍화된 상태의 장육삼존상 대석에서 治石이나 채석의 흔적이 없는 표면은 그 규모나 형태와 더불어 석재가 불상대석으로 가공되기 이전의 용도를 시사한다.

장육삼존상 대석의 원래 용도와 관련하여 본존상 대석과 우협시상 대석이 한 덩어리의 바위를 반으로 쪼개서 만들었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두 불상대석은 노출된 단면의 규모와 형태가 같을 뿐만 아니라 암석에 포함된 철성분이 산화되면서 표면에 나타난 붉은 무늬가 서로 일치한다. 본존상 대석에는 깊이 10cm의 방형 홈 2개(13×5cm, 10×5cm)가 26cm 간격을 두고 굴착되어 있다. 이것은 한 덩어리의 바위를 반으로 쪼개고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균열이 더 이상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ㄷ자형 꺾쇠를 끼웠던 장치로 추정된다(圖 3). 대석 상면의 일부 가공된 부분을 감안하고 두 대석을 포개면 원래의 바위 형태로 복원되는데, 복원된 石塊의 형태와 규모는 분황사 동남쪽에 남아있는 청동기시대 支石墓 蓋石의 형태와 흡사하여 흥미롭다.

앞으로 장육삼존상 대석의 밑면을 조사하여 性穴의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야겠지만, 현재 황룡사지에 남아있는 삼존상 대석이나 목탑지 심초석과 같은 자연 석괴를 활용한



圖 4. 황룡사 중금당지 우협시보살상 대석

석조물은 사찰 창건 이전부터 일대에 산재해 있던 청동기시대 지석묘의 개석이 전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청동기시대 지석묘군은 선돌[立石]과 공반되는 경향이 있는데, 황룡사가 창건되기 이전부터 聖地의 징표가 되었던 迦葉佛宴座石에 대한 『三國遺事』의 기록은 선돌에 대한 묘사로 보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

러한 해석은 황룡사를 비롯한 신라 칠처가람이 고대 신앙의 신성 지역인 蘇塗에 불교사원이 건립된 것으로 보는 견해를 뒷받침한다.¹⁵⁾

지금까지 장육삼존상 대석은 臺座 혹은 座臺, 石臺座 등으로 지칭되고 있다. 나아가 진흥왕순수비나 광개토태왕비 등 6세기에 자연석을 이용하여 초대형 대좌를 만든 사례와 결부시켜 의도적으로 자연석을 이용하여 대좌를 조성했다는 견해도 있다.¹⁶⁾ 그러나 장육삼존상의 대석은 대좌의 하부구조로 대좌와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 현존하는 대석을 대좌로 본다면 신라 최고의 불상으로 추앙되던 왕실발원의 불상에 연화대좌를 생략했다는 의미가 된다. 장육삼존상 대석이 대좌가 아니라는 사실은 삼존상의 대석과 주변 諸尊像 대석과의 비교를 통해 여실히 드러난다. 십대제자상과 신장상의 대석으로 추정되는 방형 대석과 삼존상 대석의 구조를 비교하면 삼존상의 대석에만 도랑 형태의 원형 홈이 둘러져 있다는 차이가 있다(圖 4). 이러한 차이는 일반적인 불교 도상에서 여래상과 보살상에만 연화좌가 배치된다는 사실에 비추어 연화좌의 유무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삼존상 대석의 圓形遺構는 연화좌 시설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장육삼존상 대석의 원형유구가 연화좌 시설과 관계된다면 유구 주변에 남아 있는 흔적을 통해 연화좌 복원이 가능하다. 먼저 도랑 형태의 원형유구 내부는 불상의 양 발이 놓이는 子房의 크기와 일치하여 본존상과 양협시보살상 자방의 직경은 각각 130cm와 68cm로 복원된다. 이처럼 본존상과 보살상 자방의 크기가 차이를 보이는 것은 불상의 규모에 따른 연화좌의 비례치가 반영된 것으로 이해된다.

15) 이기백, 「삼국시대 불교수용과 그 사회적 의의」, 『歷史學報』 6(역사학회, 1953), p. 172; 金宅圭, 「新羅上代の土着信仰과 宗教褶合」, 『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 5(신라문화연구소, 1984), pp. 213~214.

16) 문명대, 앞의 논문, p. 3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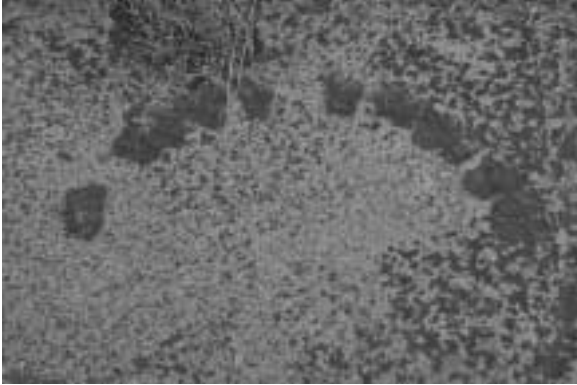


圖 5. 금당지 초석의 鐵片고임빼기 흔적



圖 6. 선도산 아미타삼존상의 본존 대좌

대좌의 재료는 불상과 동일 재료인 金銅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현재 대석 상면에 남아있는 燃燒痕을 근거로 본다면 목재였을 가능성이 크다. 삼존상 대석 가운데 가장 보존상태가 양호한 우협시보살상 대석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원형유구 주위에 연화좌 형태로 검게 그을린 연소흔이 일부 확인된다. 이러한 연소흔은 목탑지나 금당지 등 여러 건물지 초석 상면에 목조 기둥이 연소되면서 남긴 柱痕과 동일한 성격으로 대좌의 재질이 목조였음을 뒷받침한다. 그리고 금당지 일부 초석 상면에 기둥과의 裕隔을 보강하기 위해 끼워 넣었던 鐵片 고임빼기 흔적이 발견되는데 이와 동일한 흔적이 삼존상 대석 원형유구 내부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남아 있다(圖 5). 이것은 원형유구 내부에 연판을 고정시키기 위해 끼워 넣었던 철판 고임빼기가 산화되면서 남긴 흔적으로 추정되며, 고임빼기의 간격은 연화좌의 연판수와의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특이한 사항은 고임빼기 흔적이 원형유구 내부의 벽면 한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양쪽 벽면에 모두 남아있다. 이러한 현상은 연화좌 전체를 통째로 제작할 경우에는 나타나기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황룡사 장육삼존상의 연화좌는 그 규모나 재료의 특성으로 인해 연판을 여러 조각으로 분할하여 조립하는 방식으로 제작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석의 구조와 남아있는 여러 흔적을 토대로 우협시보살상의 연화좌를 복원한다면 대략 자방을 중심으로 전체를 4등분하여 조각한 12葉의 목재 覆蓮 연화좌로 복원이 가능할 것이다. 나아가 이렇게 복원한 황룡사 장육삼존상 대좌 형식과 유사한 사례를 현존하는 고대 불상 중에서 찾는다면 비록 재료의 차이는 있지만 경주 선도산 아미타삼존상의 본존 대좌를 제시할 수 있다(圖 6).

2. 장육존상의 규모와 척도

여러 경전에 따르면 석존 당시 일반인들의 신장이 8척인데 반해 석가모니의 신장은 그 배에 달하는 16尺이었다고 전한다.¹⁷⁾ 이를 근거로 불상의 높이를 16척으로 조성하고 이러한 의례에 맞게 조성된 불상을 丈六像이라 칭한다. 장육상은 좌상과 입상일 때 각기 다른 수치가 적용되고, 입상이라 하더라도 불신의 높이를 16尺으로 하는 경우가 있으며 대좌와 불신을 합한 높이를 16尺에 맞추는 사례도 있다. 그리고 좌상이라 하더라도 경주 남산 용장사지 석조여래좌상과 같이 대좌의 높이를 높여 장육상을 조성한 사례도 있어 丈六의 적용은 매우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된다. 장육상은 그 기준 설정의 어려움은 있지만 불상의 조영에 일정한 크기라는 기준이 적용되고, 그에 상응하는 도량형이 시대와 지역에 따라 변화하여 불상의 편년과 제작국 해명, 또는 원형 복원의 단서로 활용될 수 있다.

황룡사 중금당의 본존상은 여러 문헌자료를 통해 신라의 대표적인 장육상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까지 있었던 황룡사 장육존상에 대한 논의에서는 불상의 높이를 475cm로 보거나 대략 5m 정도로 추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은 통일신라시대에 통용되던 唐尺이나 현재 사용되는 曲尺을 적용하여 一丈六尺을 환산한 수치이기 때문에 황룡사 장육존상이 조성되던 진흥왕대에 통용되던 척도와는 큰 차이가 있다. 당척이 신라에 도입된 시기는 삼국통일을 전후한 시점이기 때문에 574년에 조성된 황룡사 장육존상에 당척을 적용하여 불상의 높이 복원을 시도하는 것은 큰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신라에 통용되던 척도는 고구려의 척도인 高麗尺으로 백제와 일본에서도 공통적으로 사용되었으며, 실제로 황룡사 중금당지 발굴조사 때 주간 실측을 통해 도출된 용척은 길이가 35.666cm 내외의 고려척으로 확인되었다.¹⁸⁾ 황룡사 중금당지에서 도출된 고려척은 이후 검정통계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평균치 35.790cm로 보다 정밀하게 조정되었다.¹⁹⁾ 따라서 황룡사 장육존상이 실제로 16척의 높이에 맞춰서 조성되었다고 가정하고 당시에 사용되던 고려척을 적용하면 불상의 높이는 570cm로 복원되어 기존의 추정치와 큰 차이를 보인다.

황룡사 장육존상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불상의 높이를 파악할 수 있는 단서는 장육존상의 하부구조인 대석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앞서 불상대좌의 지방으로 추정했던 장육존상 대석의 원형유구 안에는 길이 27cm, 폭 18cm의 직사각형 구멍 두 개가 약 35cm 깊이로 굴착되어 있다. 이 구멍은 장육존상 양 발바닥에 달린 두 축[足柄]을 꽂아 불상을 고정하기 위한 장치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 장치가 원형유구 중앙에 굴착되지 않고 원형유구의 동서

17) 『高麗大藏經』 권35, p. 0854 c01L. “……瑜伽論說滅劫百歲時人長八尺佛出於世身倍千人故長丈六……”

18)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앞의 책, p. 55.

19) 權鶴洙, 「皇龍寺 建物址의 營造尺 분석」, 『韓國上古史學報』 31(韓國上古史學會, 1999), pp. 12~14.

중심선을 점점으로 후방에 치우쳐서 배치되어 있다. 이러한 배치는 황룡사 장육존상 足柄의 위치와 연관된 것으로 추정된다. 금속 재질의 佛立像을 주조할 경우 대좌와 불상을 고정하기 위한 용도로 양 발바닥 밑에 족병을 마련하는데, 불상의 규모가 클수록 족병의 위치는 하중을 많이 받는 발꿈치 쪽에 가깝게 배치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장육존상 대석에 굴착된 足柄孔이 중앙에 위치하지 않고 후방에 치우친 이유는 장육존상의 발꿈치 가까이에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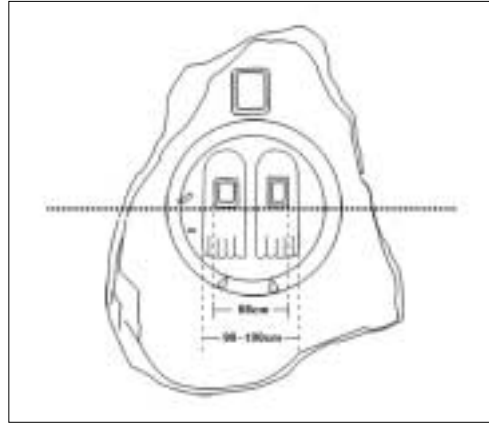


圖 7. 황룡사 중금당지 우협시보살상 대석

치된 족병을 쫓았을 때 불상의 두 발이 子房 중앙에 놓이게 하기 위한 의도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장육존상 대석에 굴착된 두 足柄孔은 불상 두 발의 너비와 직접 연관되기 때문에 장육존상의 규모를 밝히는데 매우 유용한 단서가 된다. 고대 금동불입상의 족병은 대체로 불상 발바닥 폭보다 좁게 제작되기 때문에 황룡사 장육존상 양발의 너비는 대석의 두 足柄孔 전체 폭에 해당하는 67cm보다 더 넓었다는 전제가 성립된다. 이러한 전제 조건과 함께 子房의 규모와 현존하는 고대 금동불입상의 발 폭 대비 족병의 크기를 고려하여 황룡사 장육존상 양발의 너비를 추정하면 최소 90cm에서 최대 100cm 내외로 복원된다(圖 7).

이를 통해 도출된 황룡사 장육존상 양발의 너비 추정치는 비교적 실물 근사치에 가깝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황룡사 장육존상 佛身의 높이를 구하는 유일한 단서가 된다. 불상 양발의 너비를 근거로 불상의 전체 높이를 복원하는 방법은 동시기에 조성된 불상들의 佛身 높이에 대한 발 폭의 평균 비례치를 산출하고, 여기에 장육존상의 양발 너비 추정치를 대입하면 근사치를 구할 수 있다.

현재 황룡사 장육존상과 동시기에 제작된 신라의 대형 불상이 전무한 상황에서 당시 불상들의 신체 비례치를 산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불상은 그 규모와 관계없이 대체로 일정한 신체비례를 보인다는 점에서 현존하는 삼국시대 신라 소형 금동불입상을 대상으로 신체비례 분석을 시도해보는 것도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그리고 불상의 비례치는 실제 작품의 정밀실측을 통해 산출하는 것이 정확하지만 실제 유물을 일일이 조사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다소 오차가 있을 수 있지만 차선택으로 도판의 실측을 통해 산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²⁰⁾ 이러한 방법으로 16구의 신라 금동불입상의 도판을 실

20) 도판과 실제 작품의 오차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표본촬영을 실시하여 비교한 결과 촬영 각도가 크게 틀어지지 않는 한 도판과 작품의 비율편차는 미세한 정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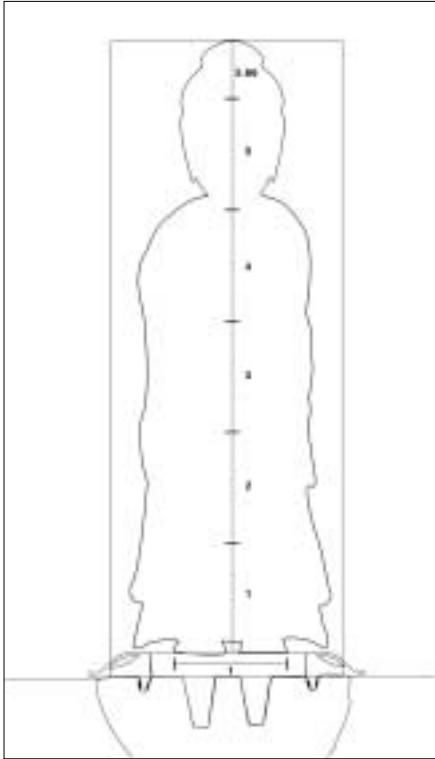


圖 8. 황룡사 장육존상 높이복원 도해

측하여 분석한 결과, 양발 너비를 1로 산정했을 때 佛身 높이의 평균 비율은 1:5.66배라는 비례치를 산출할 수 있었다.²¹⁾ 그리고 2004년 일본 東京國立博物館에서 열렸던 〈中國國寶展〉에 출품된 중국 불상 가운데 6세기에 조성된 여래입상 10구를 같은 방식으로 분석했을 때 평균 비율은 대략 1:6.23배 정도로 확인되었다.²²⁾ 이렇게 산출된 6~7세기 여래입상의 신체 비례 분석치는 특수 사례가 아닌 이상 황룡사 장육존상에 적용하더라도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짐작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자료를 종합하여 황룡사 장육존상의 높이를 복원하면 먼저 불상 비율 산출치에 장육존상의 양발 너비 추정치(90~100cm)를 대입할 경우 장육존상의 높이는 평균 564cm로 복원된다(圖 8). 이렇게 복원된 황룡사 장육존상의 높이는 오차 범위를 감안하더라도 대략 4~5m로 보던 기존의 추정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무엇보다도 주목되는 사항은 도출된 불상 높이의 평균 수치가 고려척을 대입했을 때의 장육상 높이에 근접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결과는 적어도 황룡사 장육존상이 고려척을 적용하여 장육의 크기에 맞게 조성되었다는 추정이 틀리지 않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황룡사 장육존상 조성 당시에 통용되던 고려척을 기준으로 불상 높이를 복원하면 금당지 柱間 분석을 통해 도출된 고려척 1척 길이(35.666cm)의 16배(丈六)에 해당하는 약 570cm의 거대한 불상으로 복원된다.

지금까지 황룡사 장육존상 대석의 구조를 통해 불상의 높이를 복원해보았다. 이제 역으로 약 570cm로 복원된 불상의 높이를 대석과 비교하면 희미하게나마 장육존상의 전체적인 신체 윤곽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근거가 되는 것은 장육존상 대석 중앙에 있는 지방의 너비이다. 앞서 불상의 신체비례 분석에 활용된 26구의 신라 불상과 남북조시대 여래입상의 신체 너비는 대체로 대좌의 지방보다는 약간 넓지만, 대좌 전체 너비보다는 좁게 형성된다. 현재 대석에 남아있는 子房의 규모와 좌우 협시보살상 대석과의 이격 거리를 감

21) 松原三郎, 『韓國金銅佛研究』(吉川弘文館, 1985), pp. 21~64의 도판에 실린 삼국시대 불상.

22) 『中國國寶展』(東京國立博物館, 2004), pp. 83~112에 소개된 남북조시대 6세기 여래입상.

안할 때 장육존상의 대좌 너비는 대략 250cm 전후로 추정되기 때문에 佛身の 전체 너비 또한 이를 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황룡사 장육존상의 높이와 대좌의 너비, 그리고 현존 불상들의 대좌 대비 불신의 너비 등을 종합하면 圖 8과 같이 대략 폭 240cm, 높이 570cm의 직사각형 구획을 상정할 수 있으며, 장육존상의 전체 윤곽은 이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성되었을 것이다. 이상의 추정대로라면 기존에 황룡사 장육존상의 모본으로 제시되었던 동국대학교 박물관 소장 傳 황룡사지 출토 금동여래입상과는 거리가 있다고 하겠다.

황룡사 장육존상의 전체 윤곽은 광배의 규모와도 관계된다. 장육존상 대석에는 자방으로 추정되는 유구 뒤에 연접하여 너비 31cm, 길이 40cm의 장방형 광배꽃이 구멍이 45cm 깊이로 굴착되어 있다. 자방과의 간격으로 보아 장육존상의 광배는 거신광배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다만 그 형식과 관련하여 본존상 별도의 거신광배인지 아니면 6세기 삼존불형식 가운데 하나의 광배에 삼존이 함께 조성되는 일광삼존불 형식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삼존상의 대석에는 각각 광배꽃이가 마련되어 있어 각기 독립된 광배를 갖는 형식일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삼존상의 광배꽃이가 일직선상에 배치되어 있고, 대좌를 복원했을 때 본존상과 협시상 대좌 사이 간격이 70cm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광삼존불 형식의 광배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IV. 중금당지의 諸 불상대석

황룡사 중금당지는 內陣柱 안쪽의 6개의 고주를 생략하여 넓은 공간을 확보하고 장육삼존상을 비롯한 19구의 불상을 봉안하였다. 금당지 발굴 당시 고막과 積心石列이 內陣柱礎石列의 후면과 동서측면의 전체, 그리고 전면의 일부에서 발견되어 후불벽과 측벽은 물론이고 전면 양끝 한 칸에 벽체가 내진부를 감싸고 있었던 사실이 밝혀졌다.²³⁾ 따라서 불상대석은 전면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방향이 벽체에 둘러싸인 상태에서 배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圖 9).

현존하는 불상대석을 위치에 따라 구분하면 중앙의 장육삼존상 대석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에 각각 5기의 불상대석이 한 줄로 배열되어 있었으나, 동편 끝에 놓였던 불상대석 1기는 유실된 상태이다. 그리고 동서 측 전방에 각각 1기의 불상대석이 놓여 있으며, 내진 동서쪽 중앙 초석을 중심으로 남북 측에도 각각 2개의 불상대석이 배치되어 있었으나 이 가운데 동편 남 측의 불상대석이 유실된 상태이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으로 본

23) 李康根, 「韓國 古代 佛殿建築의 莊嚴法式에 관한 연구」, 『美術史學』 12(한국미술사교육학회, 1998), p. 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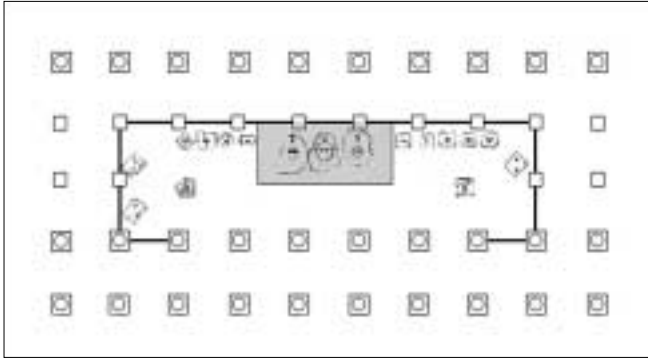


圖 9. 황룡사 중금당지 평면도

다면 황룡사 중금당에는 장육삼존상을 포함하여 모두 19기의 불상이 봉안되어있었으며, 이들 불상의 대석 가운데 17기가 현존하고 있다.

황룡사 중금당에 봉안되었던 불상 가운데 장육삼존상에 대한 문헌기록 이외에는 관련 기록이 전혀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조성시기를 비롯하여 불상의 재료나 존명을 밝히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洛陽伽藍記』에 기록된 北魏 永寧寺 금당의 건축구조와 그 안에 봉안된 불상의 숫자가 19軀로 황룡사와 일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²⁴⁾ 그러나 영녕사 금당의 불상은 문헌에 따라 차이가 있고 봉안된 불상의 존명이 불확실하다는 한계가 있다.

황룡사 금당에 봉안된 불상의 존명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견해로는 석굴암 존상과 비교하여 장육삼존상과 10대제자상 그리고 사천왕 및 제석, 범천상으로 추정하는 의견이 있다.²⁵⁾ 이러한 의견이 보편적으로 인용되고 있으나 조성 시기가 서로 다르다는 문제가 있다. 황룡사 불상들이 모두 동시기에 제작되었다면 제석천과 범천상 도상의 성립과 유입시기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장육삼존상을 제외한 나머지 상들의 봉안된 시기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발굴을 통해 확인된 내용이 검토되어야 한다. 발굴조사 당시 장육삼존상 대석 주변에서는 직경 60cm 내외의 작은 구멍들이 남쪽과 북쪽에서 발견되었다. 구멍은 대석 후면에 두 줄로 8개, 그리고 전면에도 두 줄 구멍이 6개가 있다. 동일한 구멍들은 장육삼존상 대석 외에 동서쪽 불상대석의 전면에서도 발견되었는데, 이들 구멍은 불상을 안치하기 위한 가설용 飛階구멍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리고 이 구멍은 토층조사를 통해 초석이 놓이기 이전에 가설된 것으로 확인되어 건물이 세워지기 이전 불상의 배열과 안치가 먼저 행해졌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하였다.²⁶⁾ 이처럼 발굴을 통해 확인된 내용은 10대제자와 사천왕으로 추정

24) 양정석, 「皇龍寺 中金堂의 造成과 丈六尊像」, 『先史와 古代』 12(韓國古代學會, 1999), pp. 292~295.

25) 문명대, 앞의 논문, pp. 389~390.



圖 10. 추정 사천왕상 대석의 야질흔



圖 11. 추정 10대제자상 대석

되는 상이 장육삼존상과 동시기에 조성되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다만 유구의 해석에 있어 불상 주변에서 발견된 구멍이 불상 가설을 위한 용도이기보다는, 건물이 완비되기 이전에 먼저 봉안된 불상을 보호하기 위한 가설물을 세웠던 흔적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된다.

발굴자료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10대제자상과 사천왕상의 것으로 추정되는 대석이 동시기에 제작되었다는 사실은 대석 표면에 남아있는 야질흔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이들 대석에는 공통적으로 바위를 쪼갤 때 이용했던 최대 폭 12cm, 길이 12cm의 야질흔이 남아있다(圖 10). 통일신라시대의 유적에서 보이는 야질흔의 최대 폭이 대개 8cm 미만인 점에 비추어 이 역시 시대성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 대석이 동일한 도구를 이용하여 가공되었다는 사실은 불상 역시 동 시기에 제작되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제작시기는 삼존불이 조성되었을 시기나 또는 9층탑이 세워지는 7세기 중엽의 중창시기도 가능할 것이다.

범천상과 제석천상의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대석은 발굴 당시 주변에서 가설용 구멍이 확인되었다는 보고가 없고, 지표에 노출된 상태에서 야질흔이 확인되지 않는다. 더욱이 범천과 제석천도상은 신라 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에서도 시기적으로 8세기 이전의 사례가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대석이 실제 범천상과 제석천상의 대석이라면 8세기에 이르러 추가로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렇지 않고 금당 내 불상들과 동시기에 조성된 것이라면 기존의 추정과는 다른 천부상 또는 공양상이 봉안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끝으로 장육삼존상 주변에 배치되었던 여러 불상의 재질과 관련하여 장육삼존상과 동일한 금동상이라는 의견이 있지만 명확한 근거는 없다. 사천왕상의 것으로 추정되는 대석을

26)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앞의 책, p. 55.

제외한 나머지 상들의 대석 중앙에는 27×31cm 내외의 깊이 33cm의 불상을 고정하기 위한 구멍이 하나씩 마련되어 있는데 삼존상의 대석과 비교하여 분명한 차이가 있다. 이것이 재질의 차이에서 비롯된 현상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삼존상의 경우 구멍 내부에 산화된 금속흔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반면 나머지 상의 대석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대석 중앙의 방형 구멍 중심으로 모서리 방향에 4개씩 뒬가를 받치기 위한 홈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바닥에 판재를 덧댄 소조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圖 11).

V. 맺음말

지금까지 황룡사 중금당지에 현존하는 불상대석의 구조와 표면에 남아있는 흔적을 통해 금당에 봉안되었던 여러 불상에 대한 고찰을 시도해 보았다. 현존하지 않은 작품을 대상으로 논의를 전개한다는 자체가 근본적인 모순일 수 있다. 그러나 현장에 남아 있는 불상대석들은 불상과 직접 연관되는 하부구조이자 황룡사 불상 연구의 1차 사료이기 때문에 그 구조와 흔적을 관찰하고 분석을 시도하는 것은 충분히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현존하지 않는 대상을 그 흔적만으로 고찰하기 때문에 자의적인 해석이나 논리적 비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다음과 같이 기존의 문헌 중심의 연구에서 간과되었던 내용을 보완할 수 있었다.

장육존상의 대석으로 사용된 석괴는 가공 과정과 원형복원을 통해 사찰 창건 이전부터 황룡사 일대에 산재해 있던 청동기시대 지석묘의 개석을 전용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이러한 추정에는 황룡사에 존재했다는 迦葉佛宴座石의 실체와 더불어 신라 초기 가람의 입지 선정에 대한 기존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것이다.

현존하는 장육삼존상의 대석을 대부분 불상의 대좌로 보고 있지만, 이것은 대좌가 아니라 연화대좌를 설치하기 위한 하부구조로 파악하였다. 이어서 그 위에 설치됐던 연화좌는 목재를 여러 편으로 분할 조각하여 대석에 조립하는 형식으로 추정하였으며, 이와 유사한 형식으로 경주 선도산 아미타삼존상의 본존 대좌를 제시하였다.

본존상의 규모는 기준에 높이 약 5m전후로 추정되었다. 하지만 대석의 足柄孔을 근거로 분석한 결과 고려척을 적용하여 장육의 크기에 맞게 조성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를 근거로 황룡사 장육존상의 높이를 산출한 결과 금당지 柱間 분석을 통해 도출된 고려척 1尺 길이(35.666cm)의 16배(丈六)에 해당하는 약 570cm의 불상으로 복원하여 보았다.

끝으로 10대제자상의 대석을 포함하여 불단 주변에 배치된 신장상의 재질은 장육삼존상과 달리 소조상일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대석의 설치시기는 10대제자상과 사천왕상은 장육삼존상과 동일한 시기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도상의 성립과 도입시기와 관련하여

여 논란의 소지가 있는 범천상과 제석천상의 것으로 추정되는 대석은 후대에 추가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주제어: 황룡사(皇龍寺, Hwangryongsa temple), 장육상(丈六像, Buddha statue of sixteen-foot), 장육삼존상(丈六三尊像, Sixteen-foot Buddha triad), 불상대석(佛像臺石, Stone pedestal for Buddha Statue), 고려척(高麗尺, Goryeo measurement)

투고일 2010년 7월 28일 | 심사기간 2010년 8월 2일~8월 25일 | 게재확정일 2010년 9월 15일

참고문헌

【史料】

『高麗大藏經』

『三國遺事』

【國文論著】

權鶴洙, 「皇龍寺 建物址의 營造尺 분석」, 『韓國上古史學報』 31, 韓國上古史學會, 1999, pp. 7~30.

김동현, 「慶州 皇龍寺址에 대한 遺構內容과 文獻資料와의 比較檢討」, 『불교미술』 10, 동국대학교 박물관, 1991, pp. 94~135.

김리나, 「皇龍寺의 丈六尊像과 新羅의 阿育王像系 불상」, 『震檀學報』 46·47, 진단학회, 1979(『韓國古代佛教彫刻史研究』, 일조각, 1989, pp. 61~84에 재수록).

_____, 「阿育王造像傳說과 敦煌壁畫」, 『蕉雨黃壽永博士古稀紀念美術史學論叢』, 通文館, 1988, 6, pp. 853~866.

_____, 「신라불교조각의 국제적 성격」, 『2007 신라학 국제학술대회 논문집』 제1집, 경주시·신라문화유산조사단, 2008, pp. 98~100.

金宅圭, 「新羅上代의 土着信仰과 宗教褶合」, 『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 신라문화연구소, 1984, pp. 199~218.

문명대, 「신라 三寶 皇龍寺 金堂 釋迦丈六三尊像의 복원과 皇龍사지 출토 金銅佛立像의 연구」, 『韓國佛教의 座標 - 綠園스님古稀紀念學術論叢』, 1997, pp. 375~393.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皇龍寺 遺蹟發掘調査報告書』 I, 1984.

소현숙, 「中國 魏晉南北朝時代 '瑞像' 숭배와 地域性」, 『중국사연구』 55, 중국사학회, 2008, pp. 15~49.

신영훈, 「皇龍寺九層塔과 周尺」, 『고고미술』 제9권 11호, 한국미술사학회, 1968, pp. 37~46.

신종원, 「斷石山神仙寺 造像銘記에 보이는 彌勒信仰集團에 대하여」, 『歷史學報』 143, 역사학회, 1994, pp. 1~26.

양은경, 「신라 단석산 마애불」, 『역사와 경계』 62, 부산경남사학회, 2007, pp. 73~100.

양정석, 「皇龍寺 中金堂의 造成과 丈六尊像」, 『先史와 古代』 12, 韓國古代學會, 1999, pp. 283~318.

李康根, 「韓國 古代 佛殿建築의 莊嚴法式에 관한 연구」, 『美術史學』 12, 한국미술사교육학회, 1998.

이기백, 「皇龍寺와 그 創建」, 『新羅思想史研究』, 일조각, 1986, pp. 51~74.

_____, 「삼국시대 불교수용과 그 사회적 의의」, 『歷史學報』 6, 1953, pp. 128~205.

趙法種, 「新羅寺院奴婢의 起源問題에 關韓 一考察」, 『史叢』 32, 고대사학회, 1987, pp. 1~31.

조유진, 「皇龍寺 三金堂考」, 『石堂論叢』 20, 1994, 12, pp. 149~163.

한정호, 「皇龍寺의 再照明을 위한 試論」, 『겨레문화』 11, 한국겨레문화연구원, 1997, pp. 141~172.

허형욱, 「석굴암 梵天·帝釋天像 도상의 기원과 성립」, 『美術史學研究』 246·247, 한국미술사학회, 2005. 9, pp. 5~46.

【日文論著】

마츠바라 사브로(松原三郎), 『韓國金銅佛研究』, 吉川弘文館, 1985.

『中國國寶展』, 東京國立博物館, 2004.

<Abstract>

A Study on Stone Pedestals for the Buddha Triad in Golden Hall, at the Hwangryongsa Temple-site, Gyeongju

Han Jungho*

The Buddha statue of sixteen-foot (丈六) high that once stood in the Golden Hall at Hwangryongsa temple was produced in 574 during the King Jinheung's era (540–575) of the Silla Kingdom. But the images were destroyed in the thirteenth century during the Goryeo Dynasty at the time of Mongol invasion. Although they no longer exist today, ancient historical record, *Samguk Yusa*, gives us important information that the sixteen-foot gilt bronze Buddha triad was made after the model supposedly sent by Indian King Ashoka. Although it seems to be legendary this suggests that the auspicious image of Buddha at Hwangnyongsa probably followed a certain model of Indian origin.

At the site of the Golden Hall temple site of Hwangnyongsa there still remain three huge stone pedestals for the lost sixteen-foot Buddha triad, and several more stone bases remain for the images of ten disciples, Brahma and Indra and Four Guardian Kings. This paper, however, focuses on the stone pedestal of the main Buddha by examining its shape and surface traces in an attempt to reconstruct the original statue of the Buddha and its structure.

First, the stone used for the three pedestals of the Buddha triad was probably brought from somewhere that was originally used for the cover of Dolmen structure. The color traces of the three pedestals indicate that they were cut from one piece of a huge stone.

The stone pedestal shows deeply cut holes, two rectangular ones inside a round ring and one single square hole outside the ring. These remains help to imagine how the images were once stood. It is assumed that probably an wooden lotus pedestal was placed over stone pedestal to fit to the hollow round ring. The shapes of the lotus leaves of the pedestal might be compared with those of the stone Amitabha Buddha Triad at Mount Seondo in the western part of Gyeongju city.

* Chief curator, Dongguk University Museum in Gyeongju Campus

The main Buddha statue is known to be about 5m tall, but at the time of its production they used the measurement following the system of Goryeocheok (高麗尺: Goryeo measurement). Based on the size of the holes for the foot of the Buddha statue on the stone pedestal the height of the sixteen-foot (丈六) Buddha statue would be about 570cm based on the measurement that one cheok (尺) corresponds to 35.66cm in Goryeocheok. The same measurement system was also applied to the arrangement of the columns in the main buildings at the same temple.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when the other statues in the Golden hall, probably the ten disciples, Four Guardian Kings and Brahma and Indra were made. I assume that they were probably made in clay statues. The stone pedestals indicate that those for the ten disciples and Four Guardian Kings were made at the same period, probably made together with the Buddha Triad, or more likely some years later. There were several reconstructions and enlargements carried out at Hwangnyongsa temple, one in the mid-seventh century and also in the mid-eighth century. It seems that the Brahma and Indra were added later in the mid-eighth century since one has to also consider the time when a new Buddhist iconography was added in the development of Buddhist art.